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박대신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21년 (불기 2563년) 7월 1일 (목)

<http://dongguk.or.kr>

제256호

한국 대표하는 ‘동국의 큰 인물’ 전기 낸다

동국출판문화원, 1차 발행분 故人 12명 선정 ... 10년간 100권 목표



박한영



한용운



백성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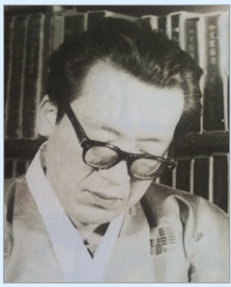
김법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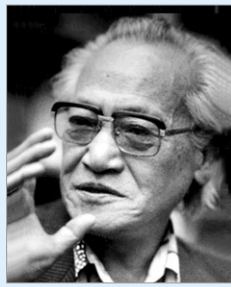
양주동



서정주



조지훈



유현목



정상영



김동영



김무생



박영석

박한영(독립운동가·동국대 전신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 한용운(시인·3.1운동 민족대표 33인), 백성욱(내무부장관·동국대총장), 양주동(국문학자), 서정주(시인), 조지훈(시인), 탄허스님(동국역경원장), 유현목(영화감독), 정상영(KCC 명예회장), 김무생(배우), 노희두(4.19 최초 피격 희생자), 박영석(산악인·세계 최초 산악 그랜드슬램 달성), 최혜정(세월호 순직교사) ...

한국을 대표하는 동국의 얼굴들이다. 민족 운명의 등불을 높이 든 선각자에서부터 실천하고 행동하는 오늘의 민주 지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교 재학생은 물론 동문들조차 잘 알지 못한다. 풍부한 인적 자원을 지녔음에도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에 모교는 지난 5월 ‘동국의 큰 인물’ (가칭/자랑스러운 동국인) 간행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간행 작업에 들어갔다. 세기를 넘어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된 민족사학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재학생과 동문들이 무한한 자긍심을 갖도록 이같이 인물 시리즈를 펴내기로 한 것이다.

국가와 사회 영향끼친 동문과 스승 중심

학교법인동국대학교(이사장 성우스님)와 동국대학교(총장 윤성이)가 공동 추진하는 이 기획은 우리 국가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동문과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한 큰 스승들의 생애와 업적을 담아내게 된다. 1차 선정 인물은 석전 박한영 스님, 만해 한용운 스님과 백성욱, 김법린, 양주동, 서정주, 조지훈, 유현목, 노희두, 김중배,

정채봉, 최혜정 교사 등 작고 인물 12명이다. 올해 최소 5권이상 출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중 11권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10권, 10년간 100권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1차 대상자 (주요 프로필, 부제(안), 집필진)

- ① 박한영(1870~1948) : 유불선 석학, 독립운동가, 중앙불교전문 교장 / 민족혼 일깨운 스승중의 스승 / 김택근(작가, 김대중 평전 저자)
- ② 한용운(1879~1944) : 시인, 독립운동가(민족대표33인) / 식민지 시대의 사슬을 끊고 독립에 앞장서다 / 고재석(교수, 한용운과 그의 시대 저자)
- ③ 백성욱(1897~1974) : 내무부장관, 동국대 총장 / 나라지킨 호랑이, 백년동국의 초석이 되다 / 장영섭(작가, 불교신문 기자)
- ④ 김법린(1899~1964) : 독립운동가, 문교부장관, 동국대 총장 / 민족의 길, 동국의 길 / 김진섭(작가, 정도전 평전 저자)
- ⑤ 양주동(1903~1977) : 국학자, 문학비평가, 동국대 교수 / 동국의 별, 한국의 인간 국보 / 장영우(교수, 문학평론가)
- ⑥ 서정주(1915~2000) : 시인, 예술원 회원, 동국대 교수 / 우리 시의 큰 별 / 윤재웅(교수, 문학평론가)
- ⑦ 조지훈(1920~1968) : 시인, 고려대 교수 / 지조 높은 선비 정신으로 시대의 사표가 되다 / 윤준호(시인, 지훈문학상 수상)
- ⑧ 유현목(1925~2009) : 영화감독, 동국대 교수 / 한국

- 영화 100년의 거목 / 정재형(교수, 영화평론가)
- ⑨ 노희두(1939~1960) : 민주열사, 4.19학생혁명 최초 피격 희생자 / 4.19학생혁명, 첫 총탄에 산화하다 / 정희성(시인, 잡지 편집인)
- 김중배(1945~1965) : 한일회담반대 시위중 경찰폭력 희생자 / 한일회담 반대, 목숨으로 민족정기를 세우다 / 정희성(시인, 잡지 편집인)
- ⑩ 정채봉(1946~2001) : 동화작가, ‘어른을 위한 동화’ 창시자 / 어른들을 순수한 동심으로 이끌다 / 백미숙(동화작가, 영화심의회위원)
- ⑪ 최혜정(1990~2014) : 세월호 교사, 어려운 시대의 진정한 선생님 / 너희 먼저 나가고 선생님이 나갈게 / 황인규(교수, 역사교육과 학생 등 집단 저술)

간행위원회 위원

- △박기련(동국출판문화원 대표, 법인 사무처장) △원명스님(불교86, 법인 감사, 조계사 부주지) △윤재웅(국문81, 모교 다르마칼리지 학장) △이계홍(국문65, 소설가, 전 언론인) △신관호(경제69, 동국대동창회보 주간) △유권준(지교88, BTN 전략기획실장) △신흥래(국문78, 계간 열린지평 주간) △지정학(국문92, 동국건학위원회 사업부장) △신미숙(일문85, 동국출판문화원 기획위원) △김정은(불교93, 동국출판문화원 편집차장)

〈동국의 큰 인물 책임편집인 윤재웅 교수 인터뷰 13편〉

개교 115주년 ... 동국학술상 등 시상

“민족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모교 개교 115주년 기념식이 5월4일 오전 본관 중강당에서 거행됐다. 개교기념일은 5월8일이다. 이날 기념식은 △총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근속상 수여 △동국학술상·우수 연구자상·대학원학술상 수여 △공로상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 수여 등 식순으로 진행됐다.

윤성이 총장은 기념사에서 “학생 50명 남짓의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우리대학은 어느덧 35만명의 동문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민족사학으로 발돋움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지만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이사장 성우스님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아 재학생들이 만족하고 졸업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더 나아가 민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세계 평화에 적극 기여하는 대학으로 성장시켜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법인, 대학과 총동창회 3자가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 한국대학문화의 선도자로서 세계 우수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빛나는 업적과 희망을 주는 대학으로 거듭 나갈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한정된 주요 내빈과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80·90년대 학번 임원 참여 권유

미래 동창회 중심세력 기반 구축 일환으로

총동창회는 제29대 박대신 회장 연임을 계기로 미래 동창회 중심세력 기반 구축을 위해 80년대 학번과 90년대 학번의 동창회 임원 참여를 권유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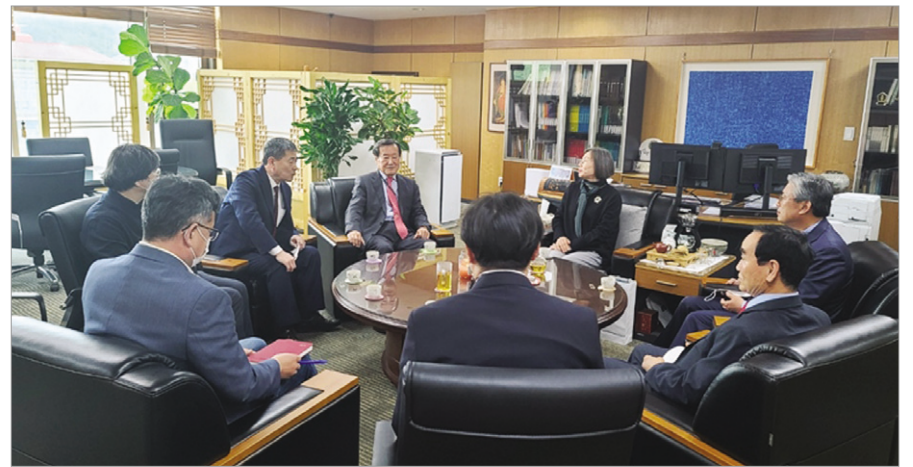
이는 50대와 40대가 차세대 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한 조직체계의 안정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동창회는 4월15일 전문직 동문과 자영업 종사 동문을 대상으로 동

창회장 서간문을 보내 80년대 학번은 상임이사로, 90년대 학번은 이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5월과 6월에는 사무처에서 해당 동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원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한편 총동창회는 기존 임원의 재선임 및 유고임원 정리와 함께 새로 선임된 임원을 추가해 수첩을 제작, 배포한다.

경주캠퍼스 이전 논란 현지 의견 청취

박대신 회장, 경주캠퍼스 및 경주시청 방문



▲ 박대신 총동창회장 등이 경주캠퍼스(총장 이영경) 보직 교수들과 의견을 나눴다.



▲ 본회 및 경주동창회 임원들이 경주시장실을 방문해 시 당국의 입장을 수렴했다.

최근 경주캠퍼스 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주직할동창회를 비롯해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경주직할동창회 임원들은 4월 27일 오후 경주캠퍼스총장실 및 경주시장실을 각각 방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경주캠퍼스는 지방대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대학으로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18일 캠퍼스이전추진위원회 구성을 발표한 바 있다.

경주캠퍼스(총장 이영경)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지역소재 대학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방안과 더불어 이전의 가능성과 타당성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시장 주낙영) 관계자는 “경주캠퍼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

최초로 대학협력T/F팀까지 신설했다”면서 “경주시와 대학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캠퍼스 주변 원룸 문제, 교통난 해소, 경주병원 경쟁력 강화, 문화시설 확충, 공원 조성 등의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주 시내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 결사반대 프랭카드가 여기 저기 붙어 있었다.

경주직할동창회(회장 조덕형)는 “1978년에 설립하여 40여년을 넘게 경주와 함께한 대학이 경주를 떠나서도, 떠나게 해서도 안 된다. 경주캠퍼스와 경주시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자구안을 마련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경주총장실 및 경주시장실 방문에는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신관호 회장 특보, 경주직할동창회에서 조덕형 회장과 공석돈 전 회장, 박병훈 전 회장, 백재욱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만해스님 77주기 추모 다례재 봉행



▲ 만해스님 추모 다례재가 모교에서 처음 열렸다. 앞으로 모교에서 매년 봉행된다.

본회 초대회장을 지낸 만해 한용운스님 제77주기 추모 다례재가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주최로 6월29일 오전 정각원에서 봉행됐다.

만해스님은 1879년 8월29일 충남 홍성에서 출생하여 1944년 6월29일 성북구 심우장에서 입적했다.

만해스님의 다례재를 모교에서 봉행하기는 처음있는 일로 모교가 주관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후원했으며, 정각원과 만해연구소는 진행을 맡았다. 다례재는 앞으로 모교에서 매년 봉행될 것

으로 알려졌다.

모교는 4월19일 이근창 한양스틸프라자 대표가 기부한 10억원을 바탕으로 ‘만해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스님이자 독립운동가, 시인으로 활동한 만해 스님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모교 만해연구소가 주축이 돼 △자료 조사와 수집·정리 △만해한용운 전집(용운당전서) 간행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데이터의 분석·활용 △만해 관련 연구자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진행한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예방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신관호 회장특보는 6월30일 충북 단양에 있는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를 방문해 총무원장 운덕스님(본명 전종윤, 경제59)과 동국인의 자긍심 고양 및 동창회 발전에 대

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본회 고문이기도한 운덕스님은 “동창회장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동국인이라는 자부심은 늘 간직하고 있다.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힘을 보태겠다”고 말하며 동국발전, 불교 융성 등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박대신 회장은 “선배님께서 천태종 중흥불사에 크게 기여하신 점을 익히 들었다. 더불어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셨는데 우리 동창회에서 소홀했던 점이 많았다. 앞으로 고문님의 고견을 경청하며 자랑스러운 동창회가 되도록 분발하겠다”고 인사했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장학증서 수여

서울·경주 재학생 50명에게 5천만원 지급



▲ 서울캠퍼스 장학증서 수여식 (6월15일, 모교 중강당)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이사장 전순표)는 2021년도 1학기 장학금으로 50명에게 각 1백만원씩 5천만원을 지급했다.

모교 중강당에서 6월 15일 진행된 서울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차원에서 박대신 총동창회장, 윤성이 모교 총장과 학교 관계자 및 장학생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임신기 총동창회 사무총장(동국장학회 사무국장 겸임) 사회로 진행된 서울 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30명에게 1백만원씩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생 선정은 단과대학과 지역·학과 동창회에서 총30명을 추천받아 확정했다.

박대신 회장(동국장학회 이사 겸임)은 인사말에서 “21세기의 사명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이다”라면서 “면학정진을 계속하여 큰 바다로 나아가 성장한 후 회귀하는 연어들처럼 동국으로 돌아와 모교사랑, 후배사랑을 이어가는 영

원한 동국인으로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이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동문님들의 변하지 않는 모교 사랑 덕분에 대학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면서 “최근 ‘건학위원회’를 발족하여 건학이념을 다방면에 걸쳐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캠퍼스 비대면 수여식

경주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은 6월18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돼 20명에게 1백만원씩 총 2천만원을 전달했다.

전순표 재단법인동국장학회 이사장을 대신하여 장학금을 전달한 조덕형 직할경주동창회장은 “동국의 자부심과 긍지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각자가 바라는 목표에 도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경미 부회장 장학금 2천2백만원

장학 및 발전기금 총 1억원 기부



본회 부회장 나경미(정외70, 제일테크노 부회장)동문이 6월10일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기금으로 2천2백만원을 박대

신 총동창회장에게 전달했다. 나 동문은 이번 기부로 장학금 및 발전기금 명목으로 총동창회에 지금까지 모두 1억원을 출연했다. 2010년 동국장학회 이사를 지낸 바 있다. 여성동문으로서 1억원 이상 기부자는故 안채란(국문48, 영석중고 이사장)동문에 이어 2번째이다. 나 동문은 “후배들이 학업에 충실해서 성공적인 사회생활로 모교를 빛내고, 한편으로 차세대 후배들로 이어지는 전통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총동창회 신입 사무국장에 김찬욱(산공83) 동문 임명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사무처 사무국장에 김찬욱(산업공학83) 동문을 6월1일자로 임명했다.

이번 공석중인 사무국장 임명은 동문간 소통 홍보와 미래

세대 중심 역할을 강화하기 이루어졌다.

김 신입 국장은 “부족함이 많은 만큼 동문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채워나갈 것이다. 동문들이 원하는 방향과 동국발전을 위한 역할을 찾아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입 국장은 동부라이텍 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ROTC동문회 前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인천동문회장에 김응수 동문

“조직 강화로 위상 제고 앞장서겠다”



인천동문회는 6월 21일 인천동문회 사무실에서 코로나 집합금지에 따라 정기총회를 대신해 긴급 집행부 임원회의를 갖고 신입 회장에 김응수(영문73)동문을 선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중국 심양으로 이민가는 유기동 회장의 사임에 따른 것이다.

김 회장은 취임인사에서 “회원간 소통과 조직 강화를 통해 인천동문회의 위상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990년부터 인천최대의 건설회사인 (주)유성종합건설을 창업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간 인천지역에서 인천상공회의소 위원, 미추홀경영자협의회 부회장,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3대 대의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한편 이날 임원회의에는 최종협 고문, 이환섭 명예회장, 이근후 지도위원장, 김성강 자문위원장, 박오규 상임이사, 김문영, 이근후, 조규태 고문, 임대순 감사, 유기동 회장 등이 참석했다.

4.19혁명 61주년 추모식



4·19 혁명 61주년 추모식이 4.19동지회 회원과 총동창회 임원, 모교 교직원, 총학생회 집행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만해광장 동우탑에서 개최됐다.

라동영 4.19혁명동지회장은 “그 날의 민주 혁명정신은 우리 역사에 올바른 가

치로 영원히 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4.19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9일이면 모교와 총동창회, 총학생회 등이 동우탑과 수유리 4.19민주묘지내 기념탑에서 추모식을 갖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선배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다.

행정대학원동문회 임원 임명장 수여

행정대학원동문회(회장 법타스님) 2021년도 고문단·상임부회장 임명식 및 간담회가 4월30일 오전 인사동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채성만 사무총장 사회로 김부언 상임고문의 참석자 소개, 홍종표 수석부회장의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식, 동문회장 법타스님 인사, 박대신 총동창회장 축사, 간담회, 축하떡 컷팅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대학원동문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고문으로 김부언(상임), 서영수(단장), 홍광표, 김오현, 오복섭, 최광일, 이경구, 김철용, 홍양희, 서대석, 김윤목, 정환민, 조종남, 이재창 동문을 추대했다.

상임부회장에는 류기수, 최민숙, 이관숙, 최영희, 신선균 동문이 위촉된 바 있다.

ROTC, 만해동산서 현충일 추모행사



ROTC동문회(회장 윤재민, 23기)는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현충일인 6월6일 오전 모교 만해동산 故 김범수(경영98) 대

위 홍상앞에서 추모행사를 가졌다.

매년 동작동 현충원에서 진행해오던 참배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장소를 모교로 옮긴 것으로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여 헌화와 묵념 순으로 국립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동문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추모식에는 ROTC 출신인 박대신 총동창회장을 비롯 성영석(9기) 노향선(20기), 김문선(21기), 이인석(22기) 등 역대 ROTC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0-5542(2020.12.18)

천만 고객과의 약속 



천만 고객과의 약속

**DB손해보험이 1,000만 고객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분 한분과 나눈 소중한 믿음 이기에
한분 한분과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 이기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당신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천만 고객과의 약속, DB손해보험

2020년 12월 1일, DB손해보험 고객 1,000만명 달성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화 투사 - 최형우 前 내무부장관

1997년 대선 유력 주자 ... 뇌졸중으로 중도 하차

YS 핵심으로 '좌동영 우형우' 로 불러
하나회 척결 · 금융실명제 개혁 기여
고문과 회유 물리치고 '민주주의' 외길

6선 국회의원. 민주협 간사장, 통일민주당 원내총무, 민자당 사무총장, 정무장관, 내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최형우 동문(정치학과 57학번 · 86세)의 화려한 이력이다.

최 전 장관의 아파트 자택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집안에서 갑자기 커다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치 싸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여성 자원봉사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뒤에 최 전 장관 부인 원영일 여사(81)가 휠체어를 탄 채 필자를 맞았다. 지난 1월 이사를 하는 중에 허리를 다쳐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다. 거실 소파에서 뼈죽이 얼굴을 내민 최 전 장관이 뭔가 요란한 소리를 질렀다. 반갑다는 의사 표시였다. 초인종을 누를 때 소리를 질렀던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민주화를 위해 사자처럼 포효했던 용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쓸쓸한 외침만이 거실에 남아있는 것 같아 지켜보는 마음은 무거웠다. 최 전 장관은 필자와 악수를 나누는 중 갑자기 필자의 손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 서툰 목소리로 "수고하십니다" 하고 말했다. 친근감을 보이는 정치인 특유의 품모였지만, 지능은 아주 낮아 보였다.

인터뷰는 부인 원 여사가 대신 맡았다. 최 전 장관은 1997년 쓰러진 이후 한때 상태가 좋아졌으나 지금은 노환까지 겹쳐 다시 언어 표현이 불확실해졌다고 했다. 부인이 응답을 하는 가운데, 최 전 장관은 주기적으로 "지게미 씨*것!" 하고 욕을 퍼부었다. 허공을 바라보며 무의미하게 외치는 일종의 '탄식' 이자 '절규' 였다. '지게미' 는 고향 경상도 울산 지역의 '지에미' 의 사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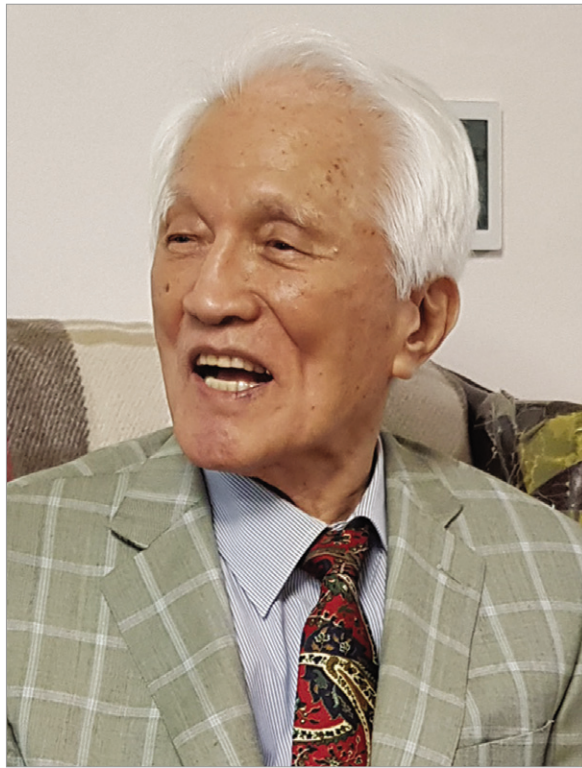
- 왜 저렇게 욕을 하시지요?

"뇌를 다쳐 언어를 잃어버릴 때는 자신이 가장 비통하게 겪었던 악몽이 원초적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유신 시절 치아가 바스러질 정도로 고문을 당했을 때의 고통과,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죽음 직전까지 물려간 고문의 악몽이 의식 가운데서 되살아나 순간순간 저런 욕을 해요. 가장 비참했던 기억이 머리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최 전 장관의 민주화 투쟁 과정과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이 오버랩됐다. 필자가 언론 현업(동아일보 기자) 시절 시위대를 이끌고 광화문 광장을 앞장서가던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97년 집권 여당의 강력한 대선 주자로 뛰던 시절, 김영삼(YS) 대통령 비서진과 갈등을 보였다는 얘기도 있었다. 부당하게 당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는 말도 들었다. 그런 분노가 쓰러진 이유가 되었다는 안타까움이 든다.

- 세월이 흘러가니 최 전 장관의 존재가 묻혀가는 것 같습니다. 근황부터 소개해주시지요.

"재작년까지 재활 치료를 받았지요. 보행 연습도 했고



요. 그런데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때문에 재활치료를 하지 못하고 24시간 내내 집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신체가 더욱 허약해질 수 밖에요."

최 전 장관은 육중한 몸에 강골의 체격을 갖고 있다. 그가 YS와 함께 시위대 선두에 서서 민주주의 쟁취, 독재타도를 외칠 때, 거리가 꽤 찰 정도였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박정희 퇴진을 요구할 때는 당시 집권 여당인 공화당을 긴장시켰다. 이런 투사를 중앙정보부가 가만 둘 리 없었다.

유신반대 투쟁 때 신민당 소속 강경파 국회의원이던 그는 주 타깃이 되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험한 고문을 당했다. 전기고문, 물고문, 구타를 견디느라 치아가 바스러졌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국회 의정당상에서 치아가 바스러졌다고 입을 악 벌려 입안을 보여주며 발언하던 모습을 필자도 직접 보았다. 다른 폭로자에 비해 그가 찍 인상적이었다.

"김영삼 총재에게 돈 갖다준 기업인을 대라. 상도동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대라면서 고문했죠. 의식을 잃으면 의사가 혈압을 재고 깨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고문을 가했다고 해요."

1979년 김영삼 총재가 외신기자회견을 빌미로 국회의원 제명되었을 때, 목숨 걸기로 하고 비상약을 휴대하고 다녔다. 분신 소동도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 때 갈수록 사태가 악화하자 당시 미국 CIA 한국지부장 존 스타인에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분신 자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80년 '서울의 봄' 시절 상도동 핵심 좌장이었던 그는 민주협 간사장으로 조직을 재가동해 YS의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체포돼 동빙고동(보안사 분실)으로 끌려가 한달간 매일같이 맞았다. 얼마후 부인 원 여사도 연행돼갔다. 생계를 위해 행상을 하던 때였다.

"검은 지프차에서 눈에 수건을 씌운 뒤 한참 가는데 들어간 곳이 궁정동 안가였어요. 노신영 중정 부장이 저에게 최형우 의원을 건설부장관과 상공장관 중 하나로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이걸 가지고 설득하는데 누비이 불 보파리 장사하며 살아가는 나는 악에 바치더군요. 남편을 가둬놓고 회유하디니요? 이 말을 들은 우리 딸도 분개했지요."

최 전 장관은 매일 죽을만치 맞았지만 흐트러짐없이 버텼다. 나중에 고문 수사관도 질려버렸다고 한다. 이처럼 최 장관의 고문 이력을 상세히 소개하는 것은 그가 쓰러지게 된 결정적 요인이 고문 후유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두환 시절 7년동안 묶여있다가 해금되면서 통일민주당을 창당한뒤 지역구를 부산으로 옮겨 13대(88년) 의원에 당선된 이래 그의 활동은 본격화된다. 통일민주당 원내총무, 국회동력자원위원장, 3당 합당 후 정무제1 장관, 민자당 사무총장, 내무부 장관(현 행정안전부)직을 수행했다. 민자당 사무총장과 정무장관 시절, 그는 민정계를 제압하는 '행동대장' 이었다. 그의 앞에서는 노태우 대통령도 주춤했다고 전해진다. 굽힘없이 민주화장정의 최선봉에 선 당당한 이력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공무원 재산 공개등록 등 개혁 조치를 과감히 단행한 것도 최형우라는 용장의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때로는 망설였으나 최 전 장관의 돌파력에 끌려간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3당 합당 이후 민정계는 물론 JP계도 겁을 내며 그를 경계했다. 청와대 비서진 역시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YS의 아들 김현철 씨를 비롯 김무성 전 의원 등 청와대 7인방이 그를 견제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 이를 돌파하며 대선 후보를 준비하다가 그는 쓰러지고 만 것이다.

뇌수술을 받은 이후 서울대 병원, 독일 병원, 세브란스 병원 5년, 삼성의료원 12년 등 지금까지 20여년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가 산처럼 쌓이는 사이 호전과 악화를 거듭하더니 세월만 흘러갔다. 그리고 집도 넘어갔다.

최 전 장관은 모교 재학 중인 4.19 때도 맨 선봉에 섰다. 10월 유신, 광주 민주화항쟁 때, 전두환 군부정권에 맞선 행동 등 투쟁의 복판에는 늘 그가 있었다. 이렇게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섰으나 지금까지 유공자 신청을 한 적이 없다. 이제는 민주투사로서 그를 평가해주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최 전 장관의 좌우명은 '큰 강은 소리가 없다' 는 대하무성(大河無聲)이다. 지체있는 유교집안의 가문에서 나온 무계감의 좌우명이다. 최 전 장관은 고조부가 조선시대 통정대부 벼슬을, 조부는 한의사로 경남도 관직시험 판정관을 지낸 빼대있는 집안의 후예이다. 또 원 여사의 고조 · 증조부는 만석꾼, 조부는 4천석이었으나 아버지대에 집안이 기울어져 최 전 장관이 정치할 때는 크게 돕지 못했다고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최 전 장관이 한사코 현관문까지 나와 배웅했다. 보행이 불편했으나 정치인 특유의 친화력과 열정이 그대로 엿보였다. 그런 모습이 마음 아프게 했다.

이계홍 <국문65 ·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인터뷰 全文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dongguk UNIVERSITY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한의마을한의원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원장
박 석 만
(한의학과 2012卒)

www.guro.go.kr

du Guro 구로구

구로구청장 **이 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Tel. (02) 860-2323 Fax. (02) 860-3010
Mobile. 010-4107-0945 E-mail. leesung@guro.go.kr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풍그린농원

대표 / 유기농학박사
이 상 진
(석사과정 2000卒)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 579-7 (울산리)
Mobile. 010-3509-3268 / Tel. 054-243-5206

서민금융진흥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이계문 동문

“서민 · 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재기 마련에 큰 보람”



용채무불이행자'라고 바꿔 부르는 이들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등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을 해주고, 이후 신용·복지 컨설팅을 통해 재무·복지·서민금융 등 종합 상담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하도록 신용도 향상 지원과 복지, 자활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사례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전남 목포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Hits집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17년간 연체된 대출 원금 8백만원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 이자 등으로 늘어난 채무액 4천만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상환독촉과 추심에 시달려온 분이었습니다. 사정을 듣고 연체이자 전액 탕감하고 원금 800만원의 약 50%를 탕감해 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월 4만3천원씩 8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원장은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서금원·신복위의 정책 서민금융 지원모델이 UN 사회개발위원회에서 공식의견서로 채택되었다”고 소개했다. 지난 2월 제59차 UN 사회개발위원회에서 채택된 서금원·신복위의 지원모델 의견서는 소득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선제적인 비대면 서비스로 코로나 19로 어려운 서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우수 금융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원장은 공자와 노자 사상에도 조예가 깊다. “인생을 빈틈없이 살아온 것으로 비쳐지는데, 그중 보람있는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데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자녀(1녀1남)들에게 20년 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함께 살면서도 편지를 씁니다. 길게는 A4용지로 38장을 쓴 것도 있습니다. 편지가 소통 방법으로는 최상입니다. 잘한 것 못한 것, 심지어 뺨방 부린 것을 가지고도 소통하지요. 아름다운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수단이 되더군요.”

이런 편지가 책 두권 분량이 된다고 했다.

“제가 기획재정부 문화방송예산과 과장으로 복무할 때(2008년), 동국대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연등행렬 행사 예산을 편성해주었어요. 세계 유일의 연등행사인데 국가예산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연등행렬은 관광자원화해도 좋은 축제입니다.”

부인 권희숙 여사(55)와는 연애시절 한 주에 8-9번 만났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결혼한 이후 다뤄본 적이 없다. 완벽하면 숨막힐 것 같지만 따뜻한 품성 때문에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를 마친 후 필자에게도 문자 편지가 왔다. 이런 피드백은 극히 드물다. 성실이 몸에 밴 품성으로 읽힌다. 이 원장은 현재 모교 고시합격자들 모임인 백상고시 동문회장, 7080동기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계홍 <국문65 ·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인터뷰 全文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 대학으로 모교 장점 많아

연등행렬 국가 예산 ... 유네스코 등재

모교의 위상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자 “그렇지 않다”는 답이 당장 돌아왔다. “지금 우리 실력으로 동국대학교에 합격할 줄 아세요?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서울에서 학급당 석차 3등 이내에 들어야 합격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원장이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위원장 이계문 동문(산업공학과 84학번)의 한마디다. 질문자의 질문이 무색할만큼 이렇게 푹 부러지게 모교 위상에 대해 평가했다.

서금원이 어떤 기관이고, 신복위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순서지만, 그의 모교 사랑의 발언이 독특해서 먼저 인용하는 것으로 기사를 정리한다. 그는 세속적 평가 기준으로 대학 서열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학교나 동문사회가 패배주의적 모교관을 갖고 있는 것에 반발한다.

-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모교가 세계 최고의 불교 학문을 선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 이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전세계를 통해 불교학의 성과가 우리 대학만큼 크게 내는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허버드나 예일보다 우위에 설 수 있고, 그래서 세계의 우수 학자와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AI(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시대인만큼 불교가 이를 충족시켜주는 바탕이 된다는 설명이다.

“AI 시대일수록 정신적 공허와 결핍을 위무해주는 것이 불교적 선과 명상, 수양인데 서구사회가 하나의 트렌드로 지향하는 이것을 불교학의 본산인 모교가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교가 투명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법인 등 지배구조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죠. 세계적으로 클 수 있는 대학인데 학교법인이나 구성원들의 세계관이 좁아요. 모교 총동창회도 마찬가지로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 원장은 모교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례적인 경력을 갖고 있다. 그것도 가장 어렵다는 재경 분야의 행시 합격자다. 그는 대학 재학시절 삼성에 합격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의 이상화와 경직된 조직 문화가 어울리지 않아서 ROTC 임관 장교로 군 복무했다가 전역 후 복직 통고를 받았으나 사직서를 제출했다.

“저는 아무래도 공적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고시를 준비했다. 1차는 쉽게 합격했다. 그런데 2차는 공대 출신이라 논술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낙방하고, 또 다시 준비했는데 이듬해 시험에서 0.04점 차이로 떨어졌다가 재도전했다.

이 원장은 행시 합격후 재정경제원(부)과 나중 이름이 바뀐 기획재정부에서 주로 근무했다. 28년간 재정 금융 통 외길을 걸어왔다. 재정경제부 외자관리과, 기획예산 담당관실, 서비스경제과장, 그리고 이름이 바뀐 기획재정부에서 문화·방송 예산과장, 국방예산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이런 인연으로 20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겸직)으로 근무 중이다.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소개부터 ...

“서금원과 신복위는 서민 · 금융취약계층을 돕는 기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절망한 나머지 목숨까지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들을 재기시키는 금융분야의 사회안전망이자 ‘금융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금원, 신복위 두 기관은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죠.”

이중 서금원은 부채 과다 · 저신용 · 저소득 등 여러 이유로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에 빠지지 않도록 저금리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한다. 지난해 56만명에게 4조9천억 원을 지원했다.

- 겸직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문자 그대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과거에는 ‘신용불량자’라고 불렀습니다만, 부정적이고 냉소적이어서 ‘금

“하나뿐인 지구, 동국인은 하나” ... 해외 동문 초청 행사

총동창회 역사 (4)

[1999년] 3월19일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제20대 회장 권노갑, 수석부회장 류주형, 감사 강의현 이재형 이은갑 동문이 각각 선출됐다. 권노갑 신임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상임부의장 겸 총재 비서실장 출신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 실세로서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속에 출범했다.

3월20일 중국 북경동문회(회장 박인동)를 비롯 6월16일 동국문학인회(회장 문효치) 10월19일 4.19혁명동지회(회장 김대건)가 창립되었다. 5월7일 공직동문 홈커밍데이, 9월11일 고교 재직동문 홈커밍데이가 모교 상록원에서 열려 동국사랑의 온도를 높였다.

10월1일부터 3일까지 ‘하나뿐인 지구, 동국인도 하나입니다’ 를 기치로 내건 북미주 동문 135명 초청행사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에서 성대히 열렸다. 첫째날은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이 모교 상록원에서, 둘째날은 ‘99동국인 체육대회’ 전야제가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셋째날은 골프대회 및 체육대회가 경주 보문CC와 경주캠퍼스 문무체육관에서 각각 진행돼 지구촌 화합의 한마당 축제의 새 장을 열었다. 이 초청 행사는 타대학 동창회의 부러움을 샀으며, 해외동창회 네트워크 강화에 교두보가 되었다. 10월14일 많은 동문들이 기금 모금에 참여했던 모교 부속 불교종합병원 착공식이 일산 식사동 병원부지에서 열려 동국의료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12월16일 열린 동국인의 밤 행사에서는 김상훈 부산일보 사장에게 동국문화 대상을 수여했으며 감사패 2명(송석구 이두철), 축하패 20명, 공로패 37명을 시상했다.

운동부 좋은 성적 올리자 적극 지원활동

[2000년] 2월5일 북미주 아리조나동창회(회장 배시영)가 모교 축구부 선수 전원을 초청, 20일간의 동계훈련 뒷바라지를 했다. 해외 동문회 차원의 운동부 합숙훈련 지원은 처음 있는 일로 체육부 활성화에 윤희유 역할을 했다.



▲ 20~21대 권노갑 회장



▲ 22대 류주형 회장

4월13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신성일 김기재 김영구 김일운 박상규 설송웅 유재규 윤철성 임인배 조재환 황승민 등 11명이 당선돼 5월23일 축하회를 열었다.

8월17일 야구부후원회(회장 조희영)가 앰배서더호텔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상시 지원을 위한 기금을 모금했다. 9월8일 야구부 준우승 축하연, 9월27일 축구부 우승 축하연 등은 당시의 모교 운동부 활동에 대한 동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9월29일 전국지부 회장단 회의가 경주캠퍼스 교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지부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는 말로만 듣던 경주캠퍼스의 모습을 한번 보고싶다는 각 지역단위 동창회 회장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모교의 교세 확장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동창회 활동 방향 등에 새로운 인식을 공유하였다.

박영석 동문 히말라야 14좌 완등 보고회

[2001년] 4월 동창회관 건립 프로젝트를 구성, 각 대학별 동창회관 현황 자료를 검토하고 회관 건립기금 모금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5월에는 (주)담우건축사무소에 건립 개요, 부지 매입, 배치 개념도, 단면도 등을 담은 ‘동창회관 신축 계획서’ 작성을 의뢰하는 등 회관 건립에 대한 실질적 활동을 예고했다. 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해 2월1일 수석부회장에 임명된 이석용 동문은 권노갑 회장에게 동창회관 건립을 위해 10억원을 조성하자며 회장의 대내외적 활동으로 9억원, 동문 모금 1억원을 제시했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

다.

6월27일 정기총회에서 권노갑 회장이 제21대 회장으로 연임되고, 감사에는 이은갑 김억근 김용호 동문을 선출했다. 8월30일 박영석 동문 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 고봉 14좌 완등기념 및 K2원정대 보고회가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려 동국산악인의 기상과 위업을 자축했다. 박영석 동문은 1993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을 국내 최초 무산소 등정에 성공함으로써 산악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그해 1년간 히말라야산맥 8,000m급의 6개 봉우리를 등정하는 세계 최초의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이후에도 8년 2개월에 걸쳐 히말라야 고산 등반에 주력해 2001년 케이투(8611m) 등정에 성공함으로써 8천미터급의 거봉 14좌(座) 완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한국 산악인 최초의 성과였으며, 세계에서 8번째 기록이었다.

국내대학 최초로 동창회보 PDF 서비스

[2002년] 2월 1일 권노갑 회장의 정치활동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줄 상근 수석부회장에 이석룡(정치54) 동문이 임명됐다. 사무처장에는 서정수(정의64) 동문이 부임했다.

9월1일 동창회 신문인 동창회보가 국내 대학동창회로는 처음으로 동문들에게 PDF 서비스를 실시했다.

11월24일 박영석 동문이 남극 최고봉 빈슨매시프 등정에 성공, 히말라야 최고봉 14좌 완등 및 7대륙 최고봉 등정이라는 대업을 달성해 세계만방에 국위를 떨쳤다.

12월11일 임시 이사회에서 임기 7개월여를 남기고 중도 사퇴한 권노갑 회장 후임에 류주형(농학53)동문이 선출됐다. 류주형 회장은 12월23일 동국인의 밤에서 회관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부하고,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회’ 모금위원장에 장동락(정의70) 조직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회관 건립의 불씨를 지폈다.

이날 前 동창회장 ‘청우 최재구추모사업회’는 문태식 아주산업회장에게 ‘제1회 동국청우상’을 수여했다.

‘동창회관 건립취지문 및 선언문’ 채택

[2003년] 1월23일 회장단 회의는 원용선(영문59) 동문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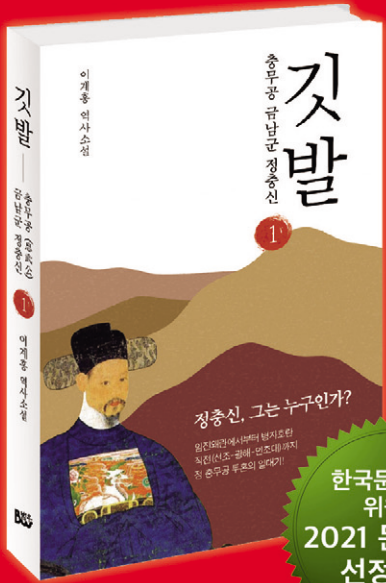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⑥

바다에는 **李愴무공**, 육지에는 **鄭愴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난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총무공 정충신 투혼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문학나눔
선정도서



저자 이계홍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 졸업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65학번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현대문학 전공)

동아일보 문화부 체육부 기자 및 문화부차장 언론특자부 차장, 문화일보 문화부장 체육부장 특집부장 사회2부장, 서울신문 논설위원 수석편집국장 통일문제연구소장(국정급), 서울여자대학교, 용인대학교 겸임교수,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객원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제연구기관) 연구기획조정팀 전문위원 역임, 1974 월간문학 신인상 소설부문 당선으로 문단 데뷔.

30년 정치인 '동창회장' 에서 기업인 회장시대 열다

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감사에 2월15일 사무처장에 송재만(수학65) 동문이 임명됐다.

3월17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동창회관 건립취지문 및 선언문'을 채택했다. 건립취지문은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눈앞에 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들의 오랜 숙원이던 '동창회관 건립'이란 우리들 사명의 대역사적 가치를 높이들게 되었습니다"라면서 "우리 17만 동문인 회원 모두, 상호간의 격조높은 친목과 끈끈한 결속을 더욱 강건케 하며,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과 현재적 힘을 결집시켜 그 사명을 완수하여 '동국인 정신'을 높이 선양하고 자랑스러운 모교의 후대 동문들에게 그 자긍심을 더욱 키우고 확장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줍시다"라고 밝히고 있다. 동창회관 건립 규모는 모교 인근지역 부지 5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1,250평으로 발표됐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에 류주형 동창회장, 부위원장에 원용선 수석부회장 외 6명, 고문, 명예자문위원, 부위원장, 추진위원 등 총 800여명으로 구성됐다. 실무위원회는 장동락 동문을 기획모금위원장으로 위촉해 진행토록 했다.

6월13일 제22차 정기총회에서는 22대 회장에 류주형을 추대했다. 수석부회장에 원용선 부회장이 재추대됐으며, 감사에는 심현식 임서규 우태주 동문을 선출했다. 류주형 회장 당선은 1971년 최재구 회장부터 정재철 황명수 권노갑으로 이어지는 32년여의 정치인 회장에서 비정치인 회장으로 바뀌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12월28일 류주형 회장은 회관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추가, 총 1억원을 기부함으로써 회관 건립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였다. 류 회장의 기부금 1억원은 동문사회 일각에서 요구해온 사실상의 회장분담금이라는 선례로 받아들여졌다.

김경제 동문, 재학생 미주 초청 연수

[2004년]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교흥 노웅래 임인배 조승수 정종복 최재성 등 6명이 당선되었다. 매 선거 때마다 당선자가 두 자리 수이던 것이 한 자리 수로 줄어 동국=정치 위상에 아쉬움을 남겼다.

4월18일 천안동문회 회원들이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갖는다.



▲ 해외 동문 초청 행사.

8월18일 북미주동창회 김경제(농학) 회장이 모교 장학생 20명을 미국으로 초청, 항공료와 체제비 등 일체를 부담하며 10박11일간 문화체험 연수기회를 제공했다. '김경제 회장 초청 북미주 해외 연수'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2010년까지 7년간 150명을 초청하였으며, 후배들에게 시야를 넓혀주고 큰 꿈을 심어주었다. 개인적인 사비로 후배들을 격려하는 이 연수행사는 대학동문사회에도 보기도 못한 사례로 회자돼 부러움을 샀다. 연수를 다녀온 장학생들은 김경제 선배가 보여준 동국사랑을 잇기 위해 '동미국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7월21일 회장단 긴급 간담회는 박도근 모교재단 감사로 부터 "동국대가 필동 중앙대병원(현 충무로 영상센터) 건물을 매입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계약금도 통상적으로 10%(27억여원)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중앙대 측에 130억 원을 전달했다"는 등의 보고를 듣고 나서 매입 의혹과 관련해 홍기삼 모교총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를 숙의했다. 결국 총장 고발로 인해 학교당국과 동창회 간에 팽팽한 냉기류가 형성되었으며, 류주형 총동창회장은 재단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굴욕을 당했다.

[2005년] 1월25일 동국대 연예인들이 예술인모임 창립 총회(초대 회장 이덕화)를 갖고 영화 TV 연극계 등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앞장서서 모교 홍보활동과 후배 연예인 배출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5월17일 정기총회에서는 제23대 회장 후보로 류주

형, 김재기 동문이 등록하여 동창회 최초로 경선 투표를 거쳐 회장을 선출했다.

5월31일 제24차 정기총회에서는 5월17일 이사회 경선에서 선출된 류주형 회장을 추대하기로 의결, 공식 취임했다. 감사에는 심현식 임서규 우태주 동문이 선출됐다.

6월24일 ROTC동문회에서 故 김범수대위 흉상을 제작, 제막식을 갖는다. 김범수(경영98) 동문은 2004년 2월 18일 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한 훈련병이 안전핀과 클립을 분리하고도 던지지 못한 수류탄을 몸으로 끌어안고 숨졌다. 이 희생으로 현장에 있던 나머지 훈련병과 교관, 조교 등 296명은 무사할 수 있었다.

이사장·총장·동창회장 동국발전 공동 성명

9월29일 류주형 총동창회장과 학교법인 이사장 현해스님, 홍기삼 모교총장은 모교 이사장실에서 회동하고 동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다. 이로써 지난해 모교 총장 고발사태 이후 소원해진 학교법인, 대학, 총동창회간 화합과 상생 채널이 복원되었다.

10월7일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 등 '친북(親北)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강정구 교수의 발언과 관련하여 상임부회장이 모교 홍기삼 총장실을 방문, 재학생 취업 제한 문제 등 동문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징계를 요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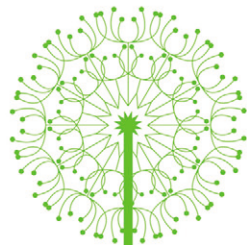
10월8일부터 10일까지 '동국사랑 독도사랑 국토순례단'이 다음해 동국100주년을 기념해 독도를 방문하여 조상들을 위한 제를 올리며 독도의 굳건한 수호와 일류 동국으로의 도약을 기원하다.

11월23일 동국대 건학100주년 비전 선포식이 'DO DREAM! BE THE NEWEST!'를 슬로건으로 동문 등 5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300억원의 동국발전기금을 조성했다.

12월15일 동국인의 밤 및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감사에 장현표, 김동진 동문을 선출하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에 문태식 아주산업 회장과 산악인 박영석 동문을 시상하다.

〈신관호·동창회보 편집주간〉

Global Outsourcing Leading Company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MP(Manufacturing Production) / FM(Facility Management) / Security / Global Business /
LS(Logistics Service) / Silver Care Service / GreenS Service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기업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타워 동관 6F Tel. 1588-2239, 02-828-3939 Fax. 02-816-2669 http://www.samkoo.com

Samkoo
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

KBL 10대 총재 김희옥 前 모교 총장



김희옥(법학68) 전 모교 총장이 프로농구 KBL 10대 총재에 선임됐다. KBL은 6월9일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총장을 차기 총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7월1일부터 KBL을 이끌게 된 김 총재는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동국대 총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학계와 관계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고문이면서 KCC의 계열 법인인 KCC글라스의 고문을 맡고 있다. 대학 총장 출신이 KBL 총재가 된 것은 처음이다. KBL은 2018년부터 10개 회원사가 돌아가며 총재를 맡고 있는데 이번에는 KCC에서 총재를 추대할 차례였다. KCC 관계자는 “새 총재가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 쌓은 경륜과 덕망을 바탕으로 프로농구 중흥의 새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는 3년.

제일기획 상근감사 이홍섭 동문



이홍섭(회계80)동문이 삼성그룹 계열 광고회사 제일기획 상근감사로 지난 3월 선임됐다. 이 감사 선임안은 표결에 부쳤을 당시 의결권 있는 주식 중 99.6%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선임안이 가결된 사내외이사 후보들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이 감사는 한국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에서 1989년부터 2017년까지 28년동안 재직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후 신한회계법인에서도 공인회계사로 2년간 일했다. 특히 이 감사는 동국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경영지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폭 넓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제일기획 측은 “이 감사는 이사회 경영진의 업무 처리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후곤 동문



김후곤(법학84)동문이 6월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지검장은 6월11일 취임식 없이 배포한 취임사에서 “개정 형사법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대검·법무부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일선 목소리를 보태 변화와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대구지검에 근무하는 동안 형사부 전문성을 높이고, 공판부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수익환수 및 집행업무에 전문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5기로 서울지검 검사, 수원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법원 양형위원, 서울 북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이은정 동문



이은정(경행84)동문이 4월30일 문화체육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임명됐다. 문체부는 “신임 이은정 이사장은 미투(Me too) 운동이 시작될 무렵,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여성보호, 성범죄 등을 처리했다”며 “뛰어난 인권 감수성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신임 이사장을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8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출범한 전담 기구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를 일원화했다. 1988년 8월1일 경찰청에 입직해 서울 마포경찰서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경찰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박윤석 동문



박윤석(법학83)동문이 7월1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으로 영전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3년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대구지검 공판부장,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장, 수원지검 부부장,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 등을 역임하고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을 맡다가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 최관호 치안정감



▲ 이규문 치안정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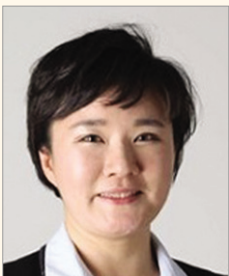
정부가 6월28일 경찰청 고위 간부 인사에서 최관호(경행84, 경찰청 기획조정관)동문과 이규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동문이 각각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모두 6자리이며,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최관호 치안정감은 1991년 제39기 경찰간부후보생으로 경위에 임용돼 서울서초경찰서장 등을 거쳤으며 2015년에 경무관으로 승진, 광주청 제1부장과 전북청 제2부장,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을 지냈다. 2018년 치안감 승진 뒤에는 전남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광주청장을 거치고 현재 최선임 치안감 중 하나인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하고 있다.

이규문 치안정감은 경찰대 4기를 졸업하고 경위로 입직해 서울청 광역수사대장, 수서경찰서장 등을 지냈으며 경무관 승진 후 대구성서경찰서장과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을 거쳤다. 2019년 치안감 승진 뒤에는 경찰청 수사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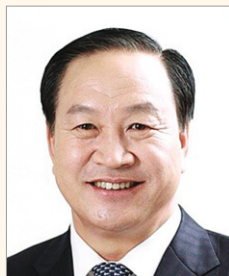
또 이날 발표된 치안감 인사에서는 이상률(대학원 박사과정, 경찰청 치안정책관) 동문과 김광호(행대원07, 경찰청 대변인) 동문이 나란히 승진했다. 치안감은 서울 등을 제외한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청 국장급이다.

과거에는 고위직 승진·보임 인사가 대부분 동시에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고위급 승진 인사 뒤 시도 자치경찰위와 협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에 시도 경찰청장을 포함한 보직 인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따라 경찰청장이 시도 자치경찰위와 협의해 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대통령이 시도 경찰청장을 임용할 수 있다.

국민의 힘 최고위원 조수진 동문 국민의 힘 사무총장 한기호 동문



▲ 조수진 최고위원



▲ 한기호 사무총장

조수진(언론정보04, 국회의원)동문이 6월11일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당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득표율 1위를 차지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초선 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기호(행대원90, 국회의원)동문은 국민의 힘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육사 31기로 제5군단장·육군 교육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18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 현재 21대 국회의원으로 있다.

본인 또는 주변동문 동정 등 각종 소식을 알려주세요

E-mail : dongguka@naver.com

영 전 · 승 진

법무부 교정본부장



유병철(법학84)동문이 7월1일자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영전했다.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

문했다. 이후 교정본부 교정정책담당장, 서울지방교정청장, 대전지방교정청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유 신임 교정본부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교정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안전 확립과 교정행정에서의 인권가치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정춘생(국민윤리88) 동문이 5월28일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에 임명됐다. 정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최초 당 여성국장과 여성가족

전문위원으로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원내행정기획실장, 조직국장, 교육연수국장, 공보국장 등 당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한국조폐공사 감사



김동욱(정외89)동문이 6월7일 한국조폐공사(KOMSCO) 감사로 선임됐다. 김 감사는 외교부장관 정책보좌관과 국회의장실 정무비

서관 및 국회 사무총장실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박동균(행정86,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동문이 5월24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정됐다.

상임위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구시장이 임명하며, 향후 3년간 위원회 사무국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립창원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



최희규(생물90, 창원대 메카융합공학과 교수)동문은 2월 1일 국립창원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에 취임했다. 미래융합대학 개설

준비단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RnD혁신본부 부분부장 등을 거쳤다.

신 간 안 내

조선통신사 옛길 걸은 까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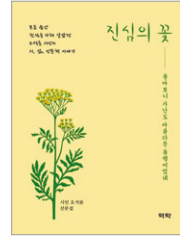


선상규(응생65, 한국체육진흥회장, 전 동국대 총장 비서실장) 동문이 ‘조선통신사 옛길을 걸은 까닭’을 펴냈다. 이 책은 지난 2007년부터 2년에 한 번 실시해 오고 있는 ‘조선통신사 서울-동경 한·일 우정 걷기 행사’ 전반을 아우르면서 2019년 제7회 대회를 중심으로 발로 쓴 현장의 생생한 기록을 담은 기록이다. 저자는 한국에 처음으로 국제걷기대회를 도입하여 1995년에 경주에서 개최한 인물이다. 조선통신사 옛길을 발굴하여 서울-동경 6회 완보, 서울-부산 2회 완보, 백의종군길, 한국 일주 걷기 등 다양한 국내의 걷기 활동으로 걷기운동의 발전·확산에 선도적 역할 수행해 생활체육 진흥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했다.

한편 저자는 “옛 조선통신사들이 사경(死境)을 넘나들며, 필사적인 노력으로, 통 큰 정치와 지혜로운 외교술을 발휘하여, 200여 년 동안 평화 시대를 선도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한 번 더 지혜롭고 격조 높은 외교술과 통 큰 외교로, 일본을 이 시점에서 용서하고, 상생의 길로 진정한 이웃사촌으로 동행하는 외교정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한다.

(글로벌마인드 / 1만9천원)

산문집 ‘진심의 꽃’



오석륜(일어일문82, 인덕대 교수) 동문이 1월15일 산문집 ‘진심의 꽃’을 발간했다. 모든 순간 진심을 다해 살았던 저자의 시, 삶, 인문학 이야기로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위로를 전달한다. 특히 추상적인 충고를 탈피해 읽는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이자 시인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조언을 건넨다. 무엇보다 진심을 다하면 삶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내 근원에 존재하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세상을 헤쳐 나가기 위한 ‘몸부림’ 같은 것 이었다”고 밝혔다.

(영락 / 1만5천원)

동문칼럼

백신을 맞았다



려와 사랑이, 종말론의 공포가, 의료진의 정성이 몸속으로 들어왔다.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살았다면, 코로나19가 더 독했다면, 의학이 이렇듯 발달하지 않았다면 나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백신을 맞고 말없이 앉아있는 사람들. 후유증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사람들. 저들이 대기하는 20분 남짓의 시간 속에 흑백시비나 진영논리는 없다. 나는 저들과 함께 인류세의 지구인으로, 새천년으로 넘어온 한국인으로 초록별에 좀 더 머물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한 세상을 상상해보라. 우리 사는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동시대를 함께 건너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우리는 머잖아 마스크를 벗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생명평화에 눈을 뜨는 신인류를 상상해본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남을 해치는’ 이기적인 삶에 변화가 오리라 믿는다. 더 이상 한국이 ‘기후약당들’의 나라가 아니길 바란다. 갠지스강이 건강하면 한강이 노래한다. 우리 생애에 다시는 이런 팬데믹이 오지 않기를 소망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평화를!

- 2021.6.12. 경향신문 발췌

김택곤 (국문75, 前 경향신문 논설위원)

인도 바라나시는 죽어서 또는 죽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다. 순례자들도 이곳에서는 자신이 끌고 온 삶을 펼쳐 들고 기도를 올린다. 4년 전 가을에 찾아간 바라나시는 더럽고 시끄러웠다. 낡은 도시에는 험벗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골목마다 쓰레기가 넘쳐났고 소나 염소 같은 동물들이 어슬렁거렸다. 그럼에도 영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갠지스강 때문이었다. 오랜 옛날부터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가 갠지스 강물을 마시고 꽃을 피웠다. 어림 2000년 동안 강물은 사람들 마음속으로 흘러들었다.

새벽 갠지스강은 안개가 자욱했다. 일행을 태운 보트가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안개 속에도 화장터 불빛이 보였다. 시신을 태우는 장작불이 강가의 어둠을 사르고 있었다. 누군가의 일생이 한 줌 재로 강물에 떠내려 갈 것이다.

그는 과연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것인가. 해가 떠오르자 가트(강가의 계단식 목욕터)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지은 죄를 흐르는 물에 씻고 있었다. 강물은 더러웠다. 더러운 것들을 씻겨서 더러워졌을 것이다. 모래톱에서는 수행자 또는 순례자들이 해를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누구는 머리를 모래에 박고 물구나무서기 자세로 햇살을 맞고 있었다. 흡사 어머니 강 옆에서 재롱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다. 갠지스강은 삶과 죽음, 성(聖)과 속(俗)을 품고

흘렀다. 이렇듯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강에 코로나19 재앙이 밀려왔다. 외신이 전하는 갠지스강의 모습은 흥족했다. 사망자가 폭증하자 시신을 강에 던지거나 모래톱에 묻었다. 기존 화장시설로는 밀려드는 주검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재가 될 수 없는 죽은 자들이 갠지스강 부근을 떠돌고 있었다. 신은 저런 가엾은 망자들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코로나19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을까. 서식지를 잃은 박쥐가 동굴 밖으로 나와 퍼뜨렸는지,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연구원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단지 어느 날 무욕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이 죽었고, 그 죽음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사람들을 해쳤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인간 생존의 그물망에 들어 있고, 그물망 속의 그물코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갠지스강의 비극을 보며 새삼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실감한다.

우리는 지구를 인류의 것이라 여기고 있다. 착각이다. 지구는 호모사피엔스의 서식지일 뿐이다. 지구 안에는 인간 말고도 역겹의 생명체가 있다. 인류는 지구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극히 미세한 세포이며, 그래서 우리는 존재와 비존재를 오가는 소립자일 수 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죽음으로 저것이 죽는다. 일체 만물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는 연기(緣起)의 세계에서 나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인연 따라 변한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으며 영원한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백신을 맞았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약물 몇 방울이 내 몸에 들어왔다. 그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녹아있다. 인류를 살려야 한다는 실험실 연구원의 절박했던 시간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의 비명,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산자들의 눈물, 약자들을 먼저 챙기는 배

“제2건학 깃발 들고 새로운 길로”



동국건학위원회 출범

모교 동국의 건학이념을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구현하기 위한 학교법인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이하 건학위원회)가 4월 29일 오전 모교 본관 5층에서 발족식과 함께 최고위원 및 상임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건학위원회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전략 및 계획수립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시설의 설치와 구성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활동 운영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건학위원회는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을 증명으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최고위원회 위원장 및 고문으로 추대

했다.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건학위원회 출범은 한국불교와 동국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불사”라면서 “한국불교의 중흥이 동국발전의 시작이고, 동국의 발전이 불교중흥의 초석이 된다는 확신으로 모두의 마음을 모아 제2건학의 깃발을 들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건학위원회 최고위원회는 고문 자승스님을 위원장으로 이사장 성우, 상임이사 성월, 교육위원장 돈관, 의료위원장 정문 스님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경주캠퍼스 총장, 채석래 의료원장, 민보경 동대부고 교장, 박기련 법인사무처장으로 구성됐다.

세계대학평가 국내15위 · 세계 494위

올해 국내대학들 국제경쟁력 약화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 QS가 6월9일 발표한 2021 ‘세계대학평가’에서 모교는 세계 494위, 국내 1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세계 456위, 국내 13위였다.

QS는 “올해 한국 대학들 순위가 내려간 주요 원인은 연구 성과 하락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각종 규제에 재정난까지 누적돼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대학 6415곳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1300위까지 순위를

매겼다.

연구·교육·졸업생·국제화 등 4분야를 ①학계 평가(40%) ②논문 피(被)인용 수(20%) ③교수 1인당 학생 수(20%) ④졸업생 평판도(10%) ⑤외국인 교수 비율(5%) ⑥외국인 학생 비율(5%) 등 지표 6개로 평가했다.

4년제 대학 195곳(교육부 공시 기준) 가운데 39곳이 QS 세계대학평가 순위 안에 들었다. 100위 안에 든 국내 대학은 서울대(36위) 카이스트(41위) 고려대(74위) 연세대(79위) 포스텍(81위) 성균관대(97위) 등이다.

AI융합학부 · 문화재학과 신설

모교는 2022학년도부터 AI융합학부, 문화재학과를 신설한다. AI융합학부의 모집인원은 79명, 문화재학과의 모집인원은 16명으로 확정됐다. 문화재학과는 불교학부에 소속될 예정이고 AI융합학부는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학부로 분류될 전망이다.

AI융합학부는 모교 특성화 전략인 ‘D.N.A.(Big Data, Network, AI)’ 분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 학문 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

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을 아우르는 융합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 지식과 AI역량을 겸비한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재학과는 ‘불교&문화예술’ 분야를 기반으로 불교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 연구 및 보존·복원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불교 발전 기여 및 종립대학으로의 건학이념을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www.ibksb.co.kr

스마트한뱅세권
i-Bank



생활 속 거리두기에도
고객을 향한 마음은 늘 가까이-

IBK저축은행

- i-Bank앱 비대면 서비스**
당일대출신청으로 당일송금가능
- 비대면 간편한도조회 서비스**
신용평점 영향없는 안심대출한도서비스
- 전국 대도시 영업점 분포**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지역 총 8개 지점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저축은행

대표번호 **1522-7900**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1-39호(2021.05.26.)

‘동국의 큰 인물’ 책임편집인 - 윤재웅 교수

“자랑스런 동국인 역사에 묻혀선 안된다”



동국의 큰 인물' 간행위원회 책임을 맡고 있는 윤재웅 책임편집인(00학번 국문학과·모교 사범대학장)을 만나 시리즈 간행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 동국의 큰 인물' 시리즈를 내게 된 배

경은?
 “올해 개교 115년을 맞은 동국대학교는 배출 동문이 35만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군이 林立해있다. 즉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들이 동국대학교 출신들이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학의 구성원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막연히 ‘옛날엔 좋은 대학이었다’ 하고 느끼는 정도고, 자긍심도 갖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의 MZ세대에게 그런 인상이 더 짙다. 따라서 Z세대인 재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을 시리즈로 내기로 했다.”

윤 책임편집인은 건학 이념에 따라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불교 선각자들을 바탕으로 두고, 한국 지성을 이끌어온 인물들을 후학들에게 소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 선정된 주요 인물들은?
 “동국대 초창기는 불교철학과 문학이 강세를 보였다.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인문학적 권위자들이 많이 등장했

다. 4.19 이후 민주주의의 산실로써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 한국 정치를 주도한 인물군이 형성되었다. 영상시대로 접어들어 연극영화과가 한국 연예계를 주도했는데, 기라성같은 스타들이 등장했다. 60년대 이후 생긴 경찰행정학과는 우리나라 경찰 조직을 장악했다. 이들 인맥을 보면 재학생들 뿐 아니라 동문가족들이 무한한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본다.

- 이들 인물군의 공통점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불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대정신을 담은 민족사학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로 동국인이 반드시 선두에 서서 응답했다.”

- 인물 선정과 간행 컨셉은?
 “1차 10권을 펴내려고 한다. 수년내 100권까지 펴낼 계획이다. 다른 대학은 인물이 부족해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 대학은 인물이 많아서 오히려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그만큼 인적이 풍부한 대학이다. 타계한 인물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현존 기업인, 즉 IT와 AI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동문 기업인도 고려하고 있다. 한 인물당 200자 원고지 500장에 일대기를 담을 것이다. 사진 자료도 풍부하게 넣으려고 한다. 딱딱한 인물평전이 아니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휴먼스토리 형식으로 꾸민다. Z세대에 맞는 컨셉의 편집이 될 것이다.”

- 활용 계획과 시판 계획은?
 “재학생들에게 교양교육 교재 및 부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대함을 모르고 자학에 빠지는 것도 슬픈 일이다. 우리 대학 재학생과 총동창회, 각 사찰, 부속학교, 부속병원 등에서 교양서적으로 반드시 읽도록 한다. 모교와 부속 기관에서 각종 행사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타월이나 세제 같은 의례적인 것 대신 ‘동국의 큰 인물’을 선물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교보문고 등 시중 서점에서도 판매할 것이다.”

윤 책임편집인은 또 불교방송과 교계매체, btn 등에 10분짜리 인물 영상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계홍 <국문65·동창회보 편집위원장>

경영학과 ‘코로나 이기자!’ 특별장학금

동문 선배들 뜻 모아 재학생 22명 수혜



경영학과는 6월16일 ‘DBA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재학생 22명에게 총 2200만 원을 지급했다.

경영학과는 동문회의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DBA스칼라십과 해외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해외 탐방을 지원하는 ‘DBA Explorer 장학금’, 해외 유학지원금 및 본교 대학원 진학지원금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안영찬 경영학과동문회장(경영 85)은 “장학금 지급이 실현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신 경영학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뜻과 더불어 경영학과 동문회는 향후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초허당 특별장학금 수여



권오춘(영문59, 모교 교육대학원) 석좌교수가 설립한 ‘초허당 특별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이 6월8일 모교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열렸다.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12명의 지방출신 학생들에게 1백만원씩 지급됐다.

초허당 특별장학은 2019년 장학금 6천만 원을 기부하여 5년간 매년 12명에게 1백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한다.

경주캠퍼스, 간호대학 신설

경주캠퍼스에 간호대학이 신설됐다. 학교법인동국대학교는 3월18일 제335회 이사회를 열어 경주캠퍼스 학사구조 개편을 의결했다. 간호대학은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과 경쟁력 분석, 타 학과 융합 연계성을 고려해 2022학년도부터는 현재 간호학과 정원을 15명 증원(85명)하고 보건의료정보학과(30명), 뷰티메디컬학과(30명)를

신설해 3개 학과를 운영한다. 이번 간호대학 신설은 최근 경주캠퍼스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학발전을 도모키 위해 설립 이후 최대 규모로 단행한 학사구조 개편이다. 1997년 개설된 간호학과는 경북 최초 4년제 간호학과로 졸업생 1431명을 배출했다.

조경학과 91학번, 2천만원

올해 입학 30주년을 맞은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91학번 동기일동이 학과발전기금 1천만 원을 모아 6월18일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에게 전달했다. 또 조경학과 81학번 박태영 서현개발(주) 대표와 11학번 박병현 SK임업 대리부자도 조경학과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전달했다.

디자인미술과 장학금 전달

경주캠퍼스 디자인미술학과 시각디자인 전공 제자사랑 장학금 수여식이 6월15일 원효관에서 열렸다. 이 장학금은 2013년부터 지급해 오고 있으며, 이번학기에는 주영윤(디자인 미술4) 학생 등 12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대학농구 U리그 준우승 차지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2021 KUSF 대학농구 U-리그에서 12년만에 결승에 진출하여 동국의 위상을 빛낸 모교 농구부 이호근 감독(왼쪽)에게 5월13일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금일봉을 전달, 격려했다. 모교 농구부는 5월4일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대결한 2021 KUSF 대학농구 U-리그 1차 대회 결승전에서 준우승을 거두는 기쁨을 토했다.

(주)커뮤니케이션컨설팅앤클리닉

개인과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을 혁신합니다.



Communication Consulting & Clinic

대표 **백승권** (국어국문 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407호
Tel. 02-302-3400



한흥기업 회장 **한 헌 석** (무역학과 1976入)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태양기업 Sun Enterprise

www.dryoven.com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각종 건조설비



-마이크로파 이용한 각종 "슬러지" 건조장치



-Microwave C/V 해동기



-Microwave 대형 Oven



-Microwave C/V 살균장치



-Microwave C/V 건조장치



-Microwave C/V Dry Oven

www.dryoven.com

대표 권 희 경

앞선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조설비 전문업체

- 1981.04.15 태양기업 설립
- 1995.04.05 태양기업 인천공장 준공 및 이전
- 1996.04.16 URAY 연구소와 UV 기술이전 계약체결
- 1997.01.14 일본 다쿠보 엔지니어링사와 기술제휴/대리점 계약체결
- 1997.12.01 산업자원부 청정생산기술개발 사업체로 선정
- 2000.02.2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체로 선정
- 2000.03.28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으로 지정
- 2000.08.25 인천광역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
- 2002.07.23 신공정으로 확장이전(대지 1000평 건물 1200평)
- 2004.10.11 특허청 실용신안등록 제0365433호 (열유출방지 구조를 구비한 박스타입 드라이 오븐장치)
- 특허청 실용신안등록 제0365434호 (캐스터를 구비한 박스타입 드라이 오븐장치)
- 2005.01.06 특허청 특허 제0373369호 (위젯타입 드라이 오븐 장치)
- 2005.02.21 특허청 특허 제0377331호 (제트 격외선 타입 드라이 오븐장치)
- 2005.08.12 인천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인천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 2005.11.30 무역의 날 "100만 수출탑 수상"
- 2007.04.01 MICROWAVE 전문기업 MIC합형
- 2011.11.30 무역의 날 "300만 수출탑 수상"
- 2012.05.17 지식경제부 표창장 수상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법운정사 주지스님

- (사)청소년교화연합회 중앙이사 겸 회장
- 법무부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위원회 회장

김 래 동 (행정학과 1980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15길 66, 법운정사 (봉천동)

Mobile. 010 . 5219 . 4003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이 민 응



제품소개

www.pos-tech.co.kr



(주)포스테크 대표이사 **이 명 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이앤씨벤처드림타워3차 1001호
Tel. 02-865-1595 | Fax. 02-865-1594 | E-mail. ptle@pos-tech.co.kr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21년 4월 1일 ~ 2021년 6월 27일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 순

고문 분담금 100만원



김종규 (경제58)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



박충환 (경제55)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민휘 (정치52)
Train Works 회장



이창규 (경영62)
DK메디칼솔루션 회장



이태영 (사학51)
前 호남대학교 총장



조은구 (경제64)
동양에스텍 대표이사



현해스님 (불교64)
월정사 회주



홍영춘 (불교61)
前 SK에너지 CEO

부회장 회비 100만원



김병은 (행대원92)
연양김씨대종회 명예회장



김애주 (영어영문76)
모교 대외협력처장



박상범 (경영74)
모교 경영학과 교수



박 순 (불교66)
불교학과 동문회장



법조스님 (불교70)
포항옥천사 회주



법타스님 (인도철학67)
조계종 원로의원



신영태 (무역81)
티디에프코리아 대표이사



이재창 (경영00)
태양트레이 대표이사



임금동 (경영81)
한세상사 대표



진각스님 (사과대09)
관음종 송광정사 주지스님



차재웅 (행대원91)
오봉산추모공원 이사장



차준은 (경영64)
EUNSUNG MEXICANA 회장



해운스님 (불교11)
포항 원법사 주지



허창식(영어영문75)
원스 대표이사

부회장 50만원

김희배 (공업경영81)

강희석 (호텔경영97)
곽노성 (전자공학69)
김득음 (사회83)
김상우 (화학90)
김상진 (행대원92)
김영국 (불교81)
김영진 (법학64)
노유성 (사회81)
박영호 (경찰행정64)
배보영 (불대원97)
송경옥 (연극영화84)
오수환 (경제84)
윤종원 (한의81)
이동철 (경영69)
이승복 (경찰행정85)
이학균 (사회교육77)
임치성 (경제88)
전길영 (경제46)
정경훈 (경영82)
조병석
최우수 (경제77)

평생회비 50만원

서거원 (경제60)
이병민 (국어국문90)

지도위원 30만원

류정우 (법학58)
박복식 (법학57)
방조원 (행대원77)
오만식 (언정대90)
이재욱 (정치외교60)
전영화 (경찰행정65)
태연자용스님 (불대원91)

상임이사 20만원

김강균 (경찰행정96)
김광철 (경찰행정76)
김상래 (경영11)
김형규 (불교89)
박상래 (통계78)
백우현 (화학66)
손문영 (토목공학69)
심재봉 (중어중문83)
안중균 (무역86)
안태호 (교육85)
유원표 (통계75)
윤두욱 (생물59)
이영안 (경영65)
이창수 (회계80)
장석현 (경찰행정79)
최명희 (행대원14)
홍진수 (경대원98)

이사 10만원

강병령 (한의81)

연회비 3만원

가재한 (경제01)
강서일 (영어영문73)
강진영 (토목공학87)
강혜전 (불대원04)
강효석 (철학81)
고상진 (경영91)
공진식 (경제57)
관음사 주지스님
관음사 주지스님
광덕사 주지스님
구봉희 (산림자원01)
권순일 (국어국문62)
권태범 (수학교육70)
권태상 (국어교육77)
김경선 (세무회계97)
김광복 (행대원94)
김규환 (행정87)
김기권 (불교59)
김기태 (경대원94)
김남수 (상학62)
김대웅

김동인 (화학62)
김명석 (정치외교85)
김상걸 (사과대92)
김상민 (경영89)
김솔기 (경제01)
김시호 (농업경제83)
김영기 (경영84)
김영진 (경제84)
김용성 (교육93)
김용태 (사회85)
김원식 (경영74)
김윤희 (행대원89)
김익상 (법학61)
김익수 (건축공학69)
김재덕 (대학원18)
김종길 (국민윤리92)
김종원 (사과대93)
김준근 (화학89)
김중대 (경대원75)
김지철 (사과대09)
김진곤 (전자계산84)
김진모 (국어국문73)
김진태 (무역70)
김찬수 (경찰행정93)
김창용 (경영87)
김철원 (법학88)

김택남 (경영08)
김한기 (행대원03)
김한성 (한의85)
남계동 (임학64)
남숙희 (국어국문68)
내원사 주지스님
노만사 주지스님
대흥사 주지스님
덕운사 주지스님
동명사 주지스님
류기철 (대학원09)
류병재 (대학원07)
류수택 (경영60)
류재원 (경영91)
류혜경 (경찰행정96)
문수사 주지스님
문수사 주지스님
미타암 주지스님
민경일 (상학61)
민병천 (공업경영82)

박기태 (대학원15)
박상기 (무역84)
박성남 (지리교육71)
박성무 (정치외교65)
박수원 (국어교육72)
박승종 (임학76)
박영락 (불교11)
박재명 (경영90)
박정민 (불교미술79)
박종부 (국어교육77)
박준근 (행대원08)
박태강 (경영64)
박태순 (수학교육81)
박태일 (국어국문65)
박할수 (회계86)
박현정 (지리교육85)
백성범 (농학80)
백승권 (국어국문85)
백용웅 (행대원82)
변병현 (자동제어공학67)
변준연 (토목공학86)
보문사 주지스님
보문선원 주지스
비로사 주지스님
서거원 (경제60)
서동일
서봉철 (법학87)
성불사 주지스님
성정현
손락상 (행정84)
손시익 (언정대97)
손수수 (한의81)
손호목 (회계79)
송관수 (회계78)
송기봉 (국어교육74)
송달용 (농학54)
송부용 (농업경제78)
송성환 (경제66)
신원사 주지스님
신중석 (건축공학75)
신진우 (경제83)
신대환 (법학63)
신혜주 (사회교육72)
심경웅 (법학67)
심규선 (물리63)
안병헌 (경영93)
안심사 주지스님

안주희 (불교81)
안준환 (경영69)
안진숙 (화학84)
안희백 (토목공학71)
양정기 (통계65)
오동원 (법학78)
오세찬 (화학82)
오정일 (행대원74)
오태갑 (정치58)
왕산사 주지스님
용천사 주지스님
용화사 주지스님
용화사 주지스님
원봉스님 (불대원02)
유경철 (전자공학92)
유윤철 (경영67)
윤길주 (무역88)
윤정사 주지스님
윤태성 (대학원07)
이건왕 (건축공학82)
이규상 (경제55)
이규현 (한의79)
이근우 (불교61)
이기순 (국어국문69)
이길차
이덕성 (체육교육70)
이동민 (경찰행정82)
이병직 (통계71)
이상우 (도시공학67)
이상훈 (교대원05)
이선주 (의학90)
이성오
이성형 (경찰행정74)
이세준 (정치60)
이영보 (법학59)
이영희 (불대원01)
이용복 (경영01)
이인용 (무역88)
이장기 (법학81)
이재권 (경제77)
이중경 (경영82)
이주영 (대학원10)
이준재 (화학공학71)
이창범 (법학82)
이재곤 (전자계산85)
이춘수 (경영01)

이춘우 (농학78)
이한구 (건축공학77)
이현준 (전기공학00)
이훈 (수학82)
임애란 (가정교육82)
임애란 (가정교육82)
임은기 (농학60)
장보선 (교대원87)
장윤스님 (불대원92)
장의식
장재혁 (정치외교83)
장형순 (전기공학85)
장현수 주지스님
전전홍 (경영61)
정규수 (건축공학81)
정만모 (토목공학77)
정상용 (정치외교69)
정선호 (경대원06)
정세훈 (법학97)
정연철 (사회04)
정유식 (법학86)
정의식 (농업경제70)
정인호 (농업생물82)
정일찬 (체육교육88)
정정섭 (전자계산85)
정종래 (국어교육78) 5만원
조병훈 (농업경제81)
조선주 (행대원81)
조영길 (행대원85)
조일권 (법학55)
조준수 (경대원87)
조철구 (수학65)
조보연 (불교79)
죽림정사 주지스님
중암사 주지스님
지산스님 (교대원88)
지원스님 (불대원07)
진성기 (행대원99)
차용식 (무역70)
채승목 (법학04)
채연식 (전자공학89)
청곡사 주지스님
청룡사 주지스님
최경봉 (물리57)
최금남 (회계79)
최무남 (경찰행정70)
최복락 (행대원01)

최순임 (회계81)
최영대 (행대원92)
최윤희 (경제07)
최종태 (법학57)
최종하 (경영68)
최중경 (사과대94)
최창순 (국어국문03)
최창순 (상학63)
최효식 (사학64)
최희규 (생물90)
탁병은 (공업경영76)
태고사 주지스님
표총사 주지스님
하찬호 (회계79)
함한진 (정보관리96)
현승유 (경제65)
홍승우 (불교86)
홍우성 (건축공학88)
화림사 주지스님
환성사 주지스님

장학위원회

김철용 (행대원71) 월 3만원

동국장학회

이진혁 (화학75) 월 5만원
 누계 : 460만원
 이성훈 (정보97) 월 2만원
 누계 : 72만원

각종 회비
 납부에
 동문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신용 UP 채무 DOWN

신용회복위원회

깊기 힘든 빚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법원 채무조정제도

연체 0~30일

연체 31~89일

연체 90일 이상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법원 신청 접수 지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지원
(소송구조기관 연계)

실직/휴직/폐업/질병/신용도하락 등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제도

채무조정 지원으로 상황이 어려우며,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서류작성 대행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브로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접수, 모바일로 간편하게!



Google play



App Store

신용회복위원회 APP(챗봇)을 통해 24시간 비대면 상담하세요

전화상담 ☎1600-5500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인터넷상담

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

· 상담방법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상담 신청 후 담당심사역과 전화상담

www.ccrs.or.kr

☎ 1600-5500